

---

---

# 大學圖書館 文獻發刊의 現況과 問題點

尹 岩 重

---

---

## 目 次

I. 緒 言	Ⅲ. 理論的 背景
1 調査의 必要性	1 調査分析
2 調査의 目的	2 理論的 背景
3 調査의 對象과 方法	Ⅳ. 當館의 當面問題
Ⅱ. 調査 現況	1 當面課題
1 文獻發刊 實績	2 當館 發刊計劃
2 文獻發刊 內容	Ⅴ. 結 語
3 文獻發刊 豫算	

---

## I. 緒 言

### 1. 調査의 必要性

現代社會는 모든 分野에서 急進的인 發展에 따라 各學問 分野가 더 細分化되는 傾向에 따라서 生産되는 文獻에서 正確한 情報를 迅速히 入手하고 適應하여야 한다. 이 같은 時代의 展開와 더불어 圖書館에 勤務하는 司書가 해야 할 使命은 더욱 莫重해지기만 한다.

서울大學校綜合化 10個年計劃概要에는 「眞理를 探求하고 文化를 繼承 創造할 英才를 길러 榮光된 祖國의 앞날을 가늠하며 슬기를 모아 人類共榮에 이바지할 世界의 大學으로 指向한다…」라고 하여 그 目標를 闡明하고, 教育方針에는 大學教育을 質的으로 強化하여 漸次 大學院 中心의 大學校로 改善發展시켜 專門分野別로 有能한 人材를 養成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勿論 大學의 教育理念和 方針은 時代에 따라 또한 그 大學의 性格에 따라서 若干의 差異는 있을지 모르나 大

學은 學問과 眞理를 探求하기 爲한 곳이며 學問을 通하여 學生의 人格을 陶冶하고 有能하고도 德望있는 人材를 養成하는 教育機關이라고 하는 根本的인 目的에서는 同一한 것이다. 이러한 崇高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는 研究를 通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 하여야 할 司書가 차지하고 있는 位置는 그 大學의 教育目的을 効率的으로 達成하기 爲한 積極的인 役軍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은 大學社會의 가장 重要한 知的資料의 寶庫인 것이다.

그러므로 學生들에게 知的 養識을 提供하여야 하고 教授의 研究를 뒷받침하여야 하며 圖書館을 利用하는 모든 利用者로 하여금 새롭고 必要한 資料를 研究에 參與하도록 招待하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大學圖書館은 各種 學術誌를 完備하고 그 資料에 對한 諮問은 勿論 研究資料 및 文獻情報의 提供과 資料의 死藏을 防止하여 學問의 發展에 貢獻한다는데서 그 必要性을 찾아 볼 수 있다 하겠다.

### 2. 調査目的

이와 같이 생각해 볼때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은

存在의 摸索期와 基礎 整理期를 거쳐 特히 急變해 가는 70年代 國際社會를 享受하고 韓國的 現實에 土着化할 時期가 當到하였으며 또한 圖書館의 情報化社會의 根底에서 轉機의 分岐點에 到達하고 있음을 想起할때 圖書館에 對한 認識은 새로운 次元에서 그 存在價値가 檢討되어야 할것이다.

서울大學校 冠岳山移轉으로 約 107萬坪의 새 캠퍼스가 具體化되어 서울大學校圖書館은 總 9,244坪의 6層 建物이 캠퍼스의 中心에 자리잡고 그 建物안에 約 4,000席의 閱覽席과 150萬卷의 藏書를 收藏할 수 있는 書庫 및 其他 施設規模에 面貌를 갖추었다하나 이 施設만 가지고 教授 學生들의 活潑한 究研 勉學活動을 支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前記한바와 같이 文獻情報量의 爆發的인 增大에 따라 오늘날의 學問은 一次文獻의 生産 못지 않게 二次文獻 即 書誌資料의 要請이 切實하여 졌다.

當館은 1975年 2月부터 서울大學校 機構改編에 따라 1段階 移轉이 되고 따라서 正式機構의 發足으로 參考書誌課에 參考閱覽室과 書誌室, 文獻複寫室을 두고 本格的인 文獻情報를 有用하게 活用할 수 있게 施設을 갖추었다. 따라서 研究 및 調査에 努力과 時間을 節約할 수 있게 利用者를 爲한 奉仕로 文獻情報를 調査, 整理하고 이를 組織化 또는 體系化하는 業務를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各種資料의 調査, 目錄, 記事의 索引등을 하여 이를 一定한 體制로 編成하고 資料利用의 길잡이가 될 文獻目錄을 만드는 業務다. 좀 더 具體的인 內容은 同一主題의 國內外的 書目 및 情報의 調査作成과 索引作成등이다. 이 業務를 圓滑히 수행하기 위하여 二次的인 奉仕側面에서 새로운 方向과 政策에 反影할 目的으로 特히 文獻發刊의 近況을 살펴 앞으로 本業務에 參考코자 調査에 着手하게 되었다.

### 3. 調査의 對象과 方法

全國 大學圖書館中에서 初級大學과 專門學校를 除外하되 教育大學을 包含시켜 78個 大學 圖書館을 對象으로 하였다. 그리고 調査範圍는 5年間(1971~1975)으로 하고 各 圖書館에서 文獻發刊에 對한 年度別 實績과 豫算執行, 그리고 運營實態를 調査하고 文獻發刊物의 內容을 크게 3가지로 區分集計 하였다. 本 調査에 仔細한 分析과 當面한 問題點을 把握하고, 當館에 所藏되어 있지 않은 文獻을 蒐集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大學 圖書館에서 文獻情報과 運營實態에 關聯하여 다음 세가지 面에서 區分할 수 있는바, 첫째 文獻發刊의 實績有無에 對한 數値와 對比, 둘째 發刊된 文獻內容의 比重, 셋째 文獻發刊事業에 豫算反影의 與否등이다. 따라서 本 調査는 經營, 規模에 關係없이 綜合大學, 單科大學을 區分없이 다만 文獻提供에 있어서, 特히 二次資料의 定刊活動을 中心으로 調査하였다. 調査對象 調査方法 調査期間은 다음과 같다.

- A. 調査對象 : 1) 國公立大學圖書館 20個  
2) 私立大學圖書館 41個  
3) 教育大學圖書館 16個  
計 77個 圖書館
- B. 調査方法 : 設問式(協調公文에 依함)
- C. 調査期間 : 1975. 7. 1~7. 31 (1個月間)

## II. 調査現況

### 1. 文獻發刊 實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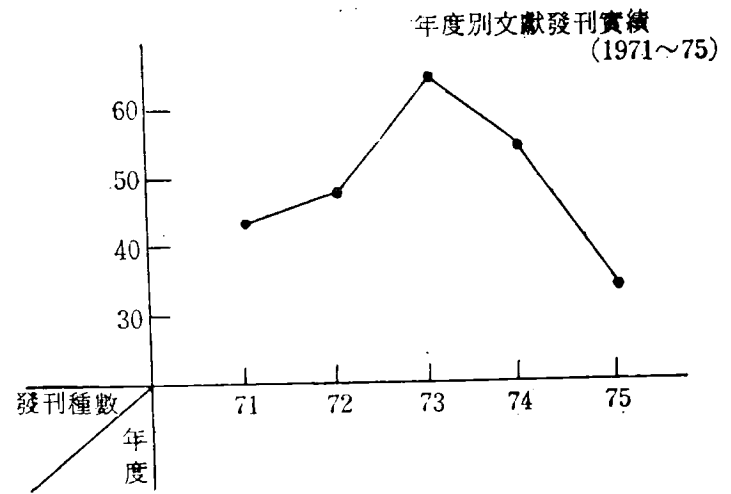
前記한 바와 같이 77個 大學圖書館을 對象으로 要請한 바 이 중에서 56個 大學(72.7%)이 回信, 또는 電話(9個大學)의 回答이 있었고, 나머지 21個大學이 回信이 없었다. 그리고 회신한 56개 대학중에서 38개 대학은 전혀 발간한 사실조차 없다고 회보하였으며 미 회신한 21개 대학은 일단

발간실적이 없다고 간주한다면 59개 대학 도서관 문헌발간 사업과 하등의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 대학의 약 4분의 1 정도만이 문헌발간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現實을 이해할 수 있으며, 奉仕活動의 貧弱性과 運營의 後進性을 示顯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다시 內容別로 본 調查狀況을 具體的으로 言及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이번 調查한 實績을 年度別로 集計한 것을 본다면 5年間의 文獻發刊은 總 247種이다. 그것은 全國 大學圖書館에서 1年間 약 50種이 發刊되는 셈이다. 이것을 全體 77個 大學을 對象으로 한다면 1年間에 0.63種, 다시 말해서 1個 大學圖書館이 1種 程度의 發刊도 못한 現實로 보아 驚異的 反應이 될 줄 믿는다. 年度別로 보면 71年度44種, 72年度 48種, 73年度 63種, 74年度 56種,

75年度 36種이다. 年間 비슷한 數字의 集計가 되고 圖表形으로 보면 73年度를 頂點으로 弓線이 된다. 또 發刊實績이 있는 江陵教育大學 外 17個 大學圖書館은 每年 約 3種이 發刊되는 趨勢이다.



## 2. 文獻發刊 內容

5年間(1971~75) 文獻이 發刊된 內容(圖 1 參照)을 보면 論文, 論叢, 研究誌 등이 146種 (59.1%)으로 首位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要覽,

### 1. 年度別 文獻發刊 現況

1975. 7. 現在

年度別 內容別 大學別	1971			1972			1973			1974			1975			計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江陵教大	1	1		1	1		1	1		1	1		1	1		10
建國大			1		1			2	1		1			1		7
慶南大	1	2		1	2		1	2		5	2			1	1	18
高麗大						1			2			2			2	7
公州教大	4	1		4	1	1	2	2		1						17
檀國大	7	1		7		1	8	1		6	1		2	8	1	43
同德女大													1	2		3
釜山水產大	4			3			3			3			2			15
西江大						1										1
서울大		2			1	3		2	1		2	1			1	13
淑明女大		1	1		1		1	3			1			1		9
嶺南大	3			3			3		2	3	1		1	1		17
延世大			1			1			1							3
全南大	6	1		6	1		11	1		14	1		3			44
春川教大	1	2		2	1		4	1		4	1		2			18
弘益大								1			1			1		3
효성여대									1							1
全北大	2	1		3	1		3	1	1		2	1	2		1	18
計	29	12	3	30	10	8	36	15	12	37	15	4	14	16	6	247
年度別合計	44種			48種			63種			56種			36種			247種

※ 凡例 1. 論文 論叢 研究誌 등	146種 (59.1%)
2. 要覽 案内 校誌 등	68種 (27.6%)
3. 書誌 目錄 및 記事索引 등	33種 (13.3%)
合 計	247種

案内, 校誌 등이 68種(27.6%)이며, 書誌, 目錄 및 記事索引이 33種으로全體에서 下位로 13.3% 不過 함으로 奉仕的 立場에서 貧困性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 3. 豫算內容

大學 圖書館의 現在 運營은 比較的 짧은 期間인 1年單位로 豫算이 짜여지고 있고, 特히 二次的인 奉仕로 發刊事業은 가장 被動的인 執行現狀이다. 그러나 이번 調査에 年度別로 發刊事業費를 策定한 곳은 釜山水山大學, 嶺南大學, 江陵教育大學 그리고 弘益大學이며, 이 中에서 嶺南大學은 이 事業費로 73年度에 460萬원을 策定한 事實은 劃期的인 일이다.

## Ⅲ. 理論的 背景

### 1. 調査分析

우리나라 大學 圖書館의 文獻發刊에 對한 近況을 調査하고 分析하기 前에 運營計劃을 理解할 必要가 있다. 豫算을 作成하는 일은 大學 圖書館長의 重要한 責任事項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確固한 事業目標가 樹立되어야 되고, 또한 單位事業別로 執行이 可能하여야 한다. 即 1년에 걸쳐 目錄, 또는 記事索引, 館報 등 몇種이 計劃이 되어 確定되면 이것이 하나의 目標가 되고 이 目標를 達成하기 爲해서는 人的 物的 財政的 要件이 隨伴되고 具備되어야 하나, 大體로 大學圖書館은 이 事業에 目標設定이 微溫的이다. 그 理由로서는 圖書館은 大學의 附屬機關 位置에 있으며 또한 圖書館機能이 복잡한 행정 기능속에 독자적으로 遂行하는데 度外視되고 있다.

大學內에는 本質的으로 一元化하기가 곤란하며 복잡하고 多樣的인 行政組織으로 內部組織과 管理를 管轄하는 政策은 大部分의 경우 大學管轄當局인 教授會 評의원회 등에서 政策立案에 따라 決定 됨으로 問題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司書는 積極的인 活動과 各自 獨自的인 努力으로 特色있는 事業開發에 盡力하여 質. 量 共히 바람직하여야 한다.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貧困한 狀態는 이 두가지 큰 觀點에서 보아 周知하는 바이다. 本 調査에서 發刊實績을 보면 年度別로 큰 차이는 없으며, 圖表에서 본바와같이 特히 73年度에 많은 實績은 基礎 整理期를 거쳐 土着化할 時期 였다고 풀이할 수 있으며 74년부터 다시 低調한 原因은 國際的인 惡循環에 刺戟으로 政府의 緊縮 豫算方針으로 胎動을 통한 波及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論文 研究誌 등이 59.1% 發刊된 것은 생각컨데 教授의 研究活動이 支配的인點에 있다고 보고, 다음은 要覽 案内 등은 學校活動事項을 揭載한 것임으로 一種에 P.R 素地가 있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決코 大學圖書館에서 利用者 Service에 對한 直接的인 比重과 正比例하는 것은 아니다. 大體로 發刊種數를 中心으로 하여 內容別 平均値로 삼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書誌, 目錄, 및 索引에 置重한 大學圖書館도 있다. 참고로 여기에서 외국도서관의 豫算國別對比表를 보면 豫算額에 있어서도 美國이 봉사인구 1人當 \$3.00 (₩1,200)을 基準으로 하고 있으며, 佛蘭西가 \$0.13 (₩52), 캐나다 \$1.29 (₩516) 英國이 \$2.13 (₩852), 덴마크가 \$3.55 (₩1,420)로서 덴마크가 最上位이다. 이를 우리나라와 比較해 보면 17배나 됨으로서 우리나라 圖書館豫

算이 貧困性과 後進性을 나타내고 있다,

圖書館豫算 國別對比表

單位：弗

國別	佛蘭西	캐나다	英國	덴마크	韓國
豫算額					
國民 1人當	0.13 (₩52)	1.29 (₩516)	2.13 (₩852)	3.55 (₩1,420)	0.0205 (₩8.20)
倍率	6	63	104	173	1

## 2. 理論的 背景

1962年 9月 유네스코(Unesco)는 알젠틴의 멘도사(Mendoza)에서 「라틴 아메리카 大學도서관 發表에 關한 地域세미나」(Regional, seminar on the Dereopment of University Libraries in Latin America)를 개최한 적이 있다. 세미나 參加者들 가운데는 라틴 아메리카 各國의 저명한 大學圖書館長은 勿論 大學經營者와 教授도 包含되어 있다.

세미나는 라틴 아메리카地域 高等教育機關의 現存 및 장래 發展을 감안해서 大學도서관의 要求를 檢討하였다. 이 세미나로 부터 判明된 事實 가운데 한 가지는 高位政府 管理는 勿論 經營者와 教授가 도서관학 및 도서관 問題를 보다 더 깊이 理解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點이 있다. 이 세미나에 參席한 Morris A. Geltand씨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理解가 있을때 大學圖書館長은 도서관의 장래 發展을 위한 보다 큰 支援을 期待해볼 수 있다는 見解가 闢력되었다.

이분은 大學圖書館長으로 저명한 분이며 圖書館 設立에 對한 技術과 經驗을 위한 專門家로 유네스코에서 지명된 분이다.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高位 管理者는 勿論 經營 參謀陳에서 利用者에 對한 奉仕側面을 보다 깊은 分析과 理解가 배려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圖書館의 第1의 使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運營計劃上 單位事業에 對한 費目明示가 先決問題라고 할진데 이를 爲하여는 高位 管理者 또는 圖書館長의 決心

이 主軸이 될 것이며, 實務者도 例外가 될 수가 없다. 도서관인이라 하면 누구나 한번 이상 奉仕니, 서비스니 하는 말은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大衆 用語는 圖書館界만 局限된 것은 아니다. 아무튼 圖書館界에서 特히 많이 使用된 말임으로 文獻情報量의 爆發的인 增大에 따라서 오늘날의 學問은 1次文獻(原資料)의 生産 못지 않게, 2次文獻(書誌資料)의 要請이 切實하여 졌다. 오히려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는 1次文獻 보다 2次文獻이 더 優先을 차지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 書誌資料의 하나인 各種 抄錄誌, 또는 各文獻의 目錄 및 記事索引이 더 널리 普及되어 學術 및 究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先進國에서는 書誌活動을 展開하여 온지 이미 오래인 것은 누구나가 다 周知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司書의 努力이다. 前記한 바와 같이 利用者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大量의 資料가 廣範圍하게 散在하여 있는 것을 整理하여 利用者에게 活用을 하도록 案内하여 주는 便宜를 提供하고 資料의 死藏을 防止하며 學問의 發展에 貢獻한다는데서 司書의 自負心으로 恒常 計劃性이 있는 業務와 展開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大學도서관 間에 相互貸借의 活用體制의 確立이다. 그것은 相互 資源의 廣域開放 廣域 서비스로 飛躍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相互貸借問題가 主軸이 될 것이다. 이 問題가 韓國圖書館界에서 논의된 것은 오래된 일이나 實現치 못하고 있으며 69年度부터 國立中央圖書館을 中心으로 16個館 間의 協約에 依한 相互貸借組織과 醫科學圖書館 間 또는 YES 大學(延世, 梨花, 西江)間 그리고 地域別로 非公式的인 貸借등 極히 消極的 行爲에 不過하다. 이의 未發達된 主原因은 實務陳間의 努力과 管理者와의 封建意識의 對立이 根本的인 原因이라고 생각된다. 이의 具體的인 實施方法은 研究와 實驗의 餘

地가 있으나, 하루 速히 地域的으로 實施를 爲한 制度化와 組織體制의 確立만이 大學에 發展을 가져올 수 있고 近代化에의 捷徑이다. 大學圖書館界에 있어서 緊急한 課題로서 圖書館人 모두가 謙虛하고 眞摯하게 논의하여야 할 問題이다.

#### IV. 當館의 當面問題

##### 1. 當館의 課題

圖書館은 大學의 教育目的을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爲한 教育支援 施設의 核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教授, 훌륭한 學生, 훌륭한 施設을 가지는 것에 못지않게 훌륭한 圖書館을 갖추는 것이야 말로 그 大學의 자랑이며 名譽일 것이다.

現在 當館은 近代建築을 자랑하는 華麗壯嚴과 裝飾된 外觀을 가지고 分類目錄의 方法에 歐美의 最近方式을 導入하여 圖書館 自體에서 近代圖書館이라고 自負해도 그것으로는 近代圖書館으로 蟬脫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는 첫째 向上할 수 있는 資質要件으로 從來 印象과 色彩에서 脫皮하여 利用者와 呼吸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한 相互協力에 依한 積極的인 奉仕活動으로 昇化되어야 하며 이르기 爲한 積極的인 職員參與가 要請되는 것이다.

朝鮮日報社會面에 揭載된 「한국의 톱 企業人들에게 들어본다」는 記事內容을 要約하면 大體로 經營者의 공통된 말은 人和團結과 솔선수범 職員參與을 강조했다. 이 組織的인 「人脈」의 大命題 앞에는 企業倫理로 成長하였다는 것을 想起할 수 있다. 둘째 相互貸借에 對한 組織的 體制의 形成이다. 전장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館種別 地域別 專門別로 一部 協約이 있으나 미래에 과밍턴계획(Farmington plan)과 같은 協約을 模倣하여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rmington plan은 美國의 研究 圖書館들끼

리 自然的으로 맺은 한 協定이며 우리도 觀心을 가지고 推察하여야 한다. 各己 平等한 立場에서 相互協力이라는 次元에서 造成되고 資料속에 利用者를 끌어 드려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綜合目錄이 없이는 發展을 期待할 수 없다. 셋째 圖書館의 機械化問題이다. 이 것은 두가지의 面에서 考慮되고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奉仕手段의 機械化이며, 다른 하나는 情報檢索의 機械化이다. 우리가 傳統的인 圖書館의 存在價値를 設定하는 立場에 본다면 多樣한 奉仕의 手段과 方法을 먼저 機械化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바라는 情報檢索의 機械化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이는 過去 圖書館에서 해오던 分類나 目錄 등의 手段을 機械化함으로써 分析의 深化整理의 正確 및 細分化, 迅速한 傳達를 이루게 하는 Computer에 의한 機械化를 意味하는것인데 우리는 期待해 볼 일이다.

##### 2. 當館 文獻發刊 活動(75年度)

가. 國立大學校 所藏 逐次刊行物 綜合目錄

1975. 7. 既刊 不定期 4.6倍版 이 目錄은 서울大學校를 비롯한 5個 國立 大學校 即 慶北, 釜山, 全南, 全北, 忠南大學校등 6個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逐次刊行物 2,247種을 西洋의 諸 言語로 쓰여진 學術的 逐次刊行物을 對象으로 하되, 72년까지 出版物을 收錄하였고 標題(變更時舊標題로 參照指示해 줌) 出版年度(創刊 廢刊年度記載해 줌) 出版地 出版頻度 所藏處表示를 밝히고 있다. 또 한가지 소개해 들것은 1972年 第 14次 國立大學校 圖書館長 및 司書長 會議에서 發刊하기로 決定한 後 서울大學校 圖書館이 主管으로 되어 全國 國立大學校圖書館의 協助를 얻어 發刊하게 되었음을 添言한다.

나. 圖書館報

1975. 9. 發行豫定 年 1回 4.6倍版

圖書館의 發展에 寄與하는 圖書館學 研究專門誌로서 諸般 業務를 分析 檢討하고 圖書館學의 研究를 爲한 전문지 인바, 特히 綜合化에 따른 새로운 方向을 提示한 圖書館의 案內 冊子임.

다. 法律文獻索引 目錄

1975. 10. 發刊豫定 不定期 4.6倍版  
解放 以後부터 74년까지 國內에서 出版된 法律學 關係 單行本과 學位論文 그리고 定刊物記事에 對한 索引 및 目錄을 學術的으로 細分化하여 各 專門分野로 利用者에게 便宜하게 編輯하여 法律學關係 資料調査에 參考가 됨.

라 新着圖書速報

1975. 9. 發刊豫定 月刊 4.6倍版  
이 速報는 當館에 受入되는 모든 刊行物의 書誌情報를 迅速히 紹介하기 위하여 月 1回 發刊하는 것이다. 이 速報를 통해 當館에 어떠한 資料가 入手되었는가를 迅速히 알수 있다. 이미 이 事實은 74年 4月부터 着手하여 7月까지 續刊 되었으나 冠岳山 캠퍼스로 移轉關係上 일시 停刊되었으나 앞으로 계속 간행할 예정이다.

바. 서울大學校 刊行物 記事索引

1976. 2. 發刊豫定 不定期 4.6倍版  
이는 本校에서 刊行된 모든 出版物에 掲載 發表된 研究論文과 記事를 쉽게 찾아서 볼수 있게 한 記事索引目錄임으로 本校 教職員問의 研究活動을 把握하고 政策決定과 學生들의 學術研究活動에 奉仕資料가 됨.

## 5. 結 言

大學 圖書館에 있어서는 組織, 財政, 制度, 資料, 奉仕등의 反復을 거듭 하면서 지금까지 惡循環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現實的 事情이다. 本 調査에서 다루어진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文獻發刊 實績과 運營事情 分析結果가 바로 이러

한 實態 그대로 踏襲하고 있는 것이 現實情이라고 歸結지을 수 있다고 볼수 있으나 回信者의 應答에 對한 理解와 誠實度를 가릴수 없음과 時間 資料關係로 궁색한 點이 없지 않다. 아무튼 情報量이 加速的인 增加로 研究者 自身이 必要한 主題資料의 調査 및 入手를 어렵게 만들었고 資料檢索을 龐大한 量을 읽는다는 것도 또한 곤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經濟的 與件과 時間的 制約을 除去하는 情報奉仕를 必然的인 要請에 그 性質上 一般的인 調査奉仕와 專門的인 調査奉仕로 나눌 수 있다.

情報化社會에서 要求되는 情報奉仕는 後者 即 專門的인 調査奉仕이며 이러한 機能을 圓滑히 수행하기 위하여 書誌 索引 抄錄등의 2次資料의 具備 및 作成이 무엇보다 緊要한 要素가 되는 것임으로 새로운 知識를 探求하고 創造的 研究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역설하며 도서관에서 生活하는 職員은 勿論 大學圖書館을 運營하고 維持 管理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榮光으로 生覺하면서 本稿에 負荷한 責을 免할 까 한다.

## 參 考 文 獻

1. 大學圖書館, M.A. 켈펀드著 李炳穆譯
2. 도서관이용안내, 서울大學校圖書館
3. 圖書館界, 日本圖書館研究會
4. 圖書館雜誌, 日本圖書館協會
5. 現代의 圖書館 //
6. 目でみるアメリカ의 學校圖書館, 日本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7. びぶろす, 日本國立國會圖書館連絡部編集
8. 大學圖書館關係法令基準集, 文部省大學學術局 情報圖書館課